

전주시, 지역업체와 상생발전 '공염불'

덕진공원 디자인 공모 서울지역 S기획사 선정

전주시가 지역업체 육성 및 보호를 외치며 약속했던 상생발전이 '전시성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각급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지만 실제 전주시 일부 산하부서에서는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전주시 관광산업과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덕진공원 브랜드 디자인 개발 공모를 통해 지난달 서울지역 S 기획사를 선정했다.

지역업체들은 사업비가 3000만원에 불과한 덕진공원 브랜드 네이밍, 슬로건, 표, 캐릭터 개발 사업 입찰 공고에 지역제한 없이 전국으로 입찰을 풀어 서울의 대형기획사가 낙찰된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도내지역에도 경쟁력 있는 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체가 600여개가 넘는데 구태여 입찰자격을 전국으로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입찰 참가서류 마감에 몇일 앞두고 입찰 공고에도 없던 프리젠테이션(PT) 발표를 뒤늦게 요청,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줬도 모자랄 판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심사 방식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민들을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전북지역 농민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미질 저하 등을 이유로 우선지급금 환수를 결정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선정업체 발표 역시 "선정 발표일이 지났는데도 왜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냐?"며 항의가 이어지자 전주시 관광산업과에서 당초 예고한 날보다 하루 늦게 S기획사를 발표했고 시 관계자는 "발표 마감일에 휴가를 가서 결제를 받지 못해 발표 공고를 내지 못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내놨다.

관광산업과는 역사적 전통성, 독창성, 마케팅 적합성 등을 심사항목으로 명시하고 전북대 시각디자인학과 교

수 1명, 전주대 관광학과 교수 1명, 전주시 시민소통과 1명, 농촌진흥청 직원 1명 등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4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전주시 3개 업체와 서울 1개 업체 등 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덕진공원 브랜드 개발 사업 입찰 경쟁에서 지난달 29일 서울 S기획사가 최종 선정된 것으로 일단락했다.

전주시 관광산업과 마케팅팀 관계자는 "서울의 실력 있는 대형 기획사가

덕진공원 브랜드 개발 공모에 참여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고, S기획사가 실력이 뛰어나 전라북도 토탈관광 브랜드 사업도 했는데 전주시 사업에 선정된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에 참여한 지역업체들은 브랜드 제작 전문 회사가 아니어서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며 "심사위원분들이 서울 업체를 선택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다국어 문화관광 해설서비스 확대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7명 신규 선발

전주시가 국제적인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관광해설 권역을 기존 한옥마을 중심에서 원도심 일대까지 확대하고, 한층 강화된 글로벌 관광해설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

전주시는 도시 관광해설 권역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해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한국어 2명, 영어·불어 2명, 일본어 2명, 중국어 1명 등 총 7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신규 선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문화관광해설사가 확보되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등 한층 강화된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전주의 매력을 널

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및 선발자격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하 시민으로, 전주시역 역사문화와 관광자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관광해설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자원봉사자로서 투철한 의지와 사명감을 갖춘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로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언어로 전주시 소개와 해설이 가능해야 한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2017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교육대상자를 모집한 후,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해설사 신규양성교육 이수 및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되면, 전주시 관광해설 권역인 경기전과 감암서예관,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한옥마을과 전주부성 옛길 투어 등에 배치돼 관광해설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 현재 21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경기전 등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8665명 등 국내·외 관광객 8만12213명에 게 전주 관광해설을 제공하는 등 전주를 국가대표관광지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2017년도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교육대상자 모집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이며,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에 위치한 전주시 관광산업과로 접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보건소 이웃 사랑 나눔 동참

전주시보건소 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나눔에 동참했다.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직원들은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인 평안의 집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직원들은 심시일만 모은 성금으로 작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화장지와 물티슈 등 생필품으로 마련해 전달했다.

서민정 평안의 집 원장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점점 각박해져가고 있는 요즘, 먼저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준 전주시보건소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평안의 집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위치한 20여명의 지적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다. /김영재 기자

도내 최초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전주시법에서 최초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왔다.

전주시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모님에 따라 어린시절부터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참여한 그는 지난 2008년 종교의 진정한 신도로 거듭나는 의식인 침례를 받았다.

지난해 6월 육군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그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역을 거부한 바 있다.

박씨는 재판 중 "입역 거부는 헌법에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

한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됨으로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선용 부장판사는 오늘 판결에서 피고인은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역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역을 거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판결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전주시가 영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개정된 농기계 종합보험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관내 농업인들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자차 수리비·자기신체상해 보상 등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 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을 주는 보험이다.

시는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농기계화 정책으로 고가의 고성능 농기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의 자기 부담금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그간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비의 50%만 국비로 지원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가

담비 자부담 50% 중 지방비로 25%가 추가 지원돼 농업인의 보험 가입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경운기와 광역방제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스피드스프레이어, 승용이앙기, 트랙터, 콤팩트, 결속기, 농용굴삭기, 항공방제기 등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이다.

노한형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확대는 농가부담이 줄어들게 돼 보험가입 신청농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예측하지 못한 사고예방을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영농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친환경농업과(063-281-507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장애인 현금 훔친 40대 형사입건

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의 현금을 훔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0일 지인의 현금을 훔치고 칼로 협박한 혐의로 김모씨(46.남)를 형사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1일 익산시 주현동 소재의 지인 임모씨(56.남)씨의 집에서 현금 10만원과 쌀

20kg를 훔치는 등 3회에 걸쳐 약 30만원 상당을 훔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김씨는 임씨가 1급 장애인으로 매달 국가지원금을 찾아 현금에 넣어둔 것을 알고 범행을 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김씨는 임씨가 범행을 알아채고 불러달라 하자 식칼을 들고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근 기자

국립전주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